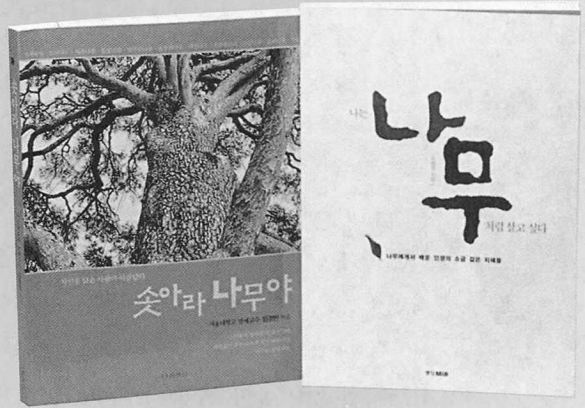


## 봄노래로 와 닿는 나무이야기 두 편

《숫아라 나무야》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를 주제로 한 책 두권이 나란히 나왔다. 《숫아라 나무야》는 나무를 서식지별로 분류해 그 특성을 자세히 알려주고,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나무에 얽힌 추억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무와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책이자, 봄의 들판과 산으로 나갈 때 참조가 될 만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다른세상/A5변형/270면/15,000원

중앙M&B/A5변형/272면/9800원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햇볕바라기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사람들 어깨에 드리워진 저 그들의 주인은 누구일까? 회화나무인가. 그러기엔 몸집이 너무 크다. 가지가 시원시원하게 뻗은 걸로 봐서 히말라야시더가 아닐까? 등치가 짙은 회색에 가까우니 팽나무인지도 모르겠다. 나무들이 곳곳에서 새순을 돋우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럴 땐 괜히 해매지 말고 전문가 안내를 받는 게 최고다.

### 서식지별 나무의 종류와 특성 개괄해

《숫아라 나무야》(임경빈, 다른세상)를 펼치면 자연 시간에 배웠던, 오래됐지만 낯익은 단어들 이 반갑게 맞아준다. 난대림, 온대림, 아한대림 등 기후환경에 따라 대표수종을 구분해서 소개하는 이 책은 아름다운 수필과 전문지식이 만난 고급 나무안내서다. 각 나무마다 원산지, 잎과 가지의 모양, 꽃 피고 열매 맺는 시기, 쓰임새 순으로 특징을 기술하고 그 옆에 전체 모습과 상세도를 배치했다. 지은이의 솜씨 있는 분류법을 따라 눈을 옮기다 보면 나무를 어떻게 보고 구분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지도가 그려진다.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강나무의 노란 단풍은 우리의 산을 황홀하게 만들고, 찬 산바람에 우르르 떨고 선 신갈나무 숲은 가을단풍의 소용돌이를 느끼게 한다. 가로수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창경궁 담벼락에 무너질 듯 우거진 나무는 메타세콰이어로 병충해가 없기로 유명하다. 공해에 잘 견디 예전에

서울시내에 가장 많이 심었던 가죽나무는 현재 경복궁 건춘문 앞에서나 볼 수 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심어진 가죽나무 가로수는 그 자체로 명품이라 할 만큼 아름답다.

내장산과 안면도 이남의 숲 속으로 가보자. 상록활엽 교목에 속하는 굴거리나무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나무의 잎과 나무껍질은 구충제로 쓰인다. 눈жат 나무, 히어리, 시로미, 헛개나무는 희귀수종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 히어리는 검정콩만한 열매가 불로장생약으로 잘못 알려져 분재용으로 많이 뽑혀나가기도 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나무다.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고산시대까지 힘겹게 올라가야 겨우 만나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도 빼놓을 수 없다. 평균 수령이 800년 이상인 이 '고령' 들은 얽혀 내려오는 전설이 흥미롭다.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신라의 마지막 세자였던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고 한다. 전라남도 송광사의 곱향나무는 보조국사와 그 제자 담당 국사가 중국에서 수도를 마치고 돌아와 짚고 온 지팡이를 나란히 꽂은 것이 두 그루의 나무로 자라났다고 한다. 서 있는 모습이 꼭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절하는 모습 같다.

### “사람들이여, 나무처럼만 살자”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우종영, 중앙M&B)는 '나무 의사'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지은이

가 나무를 치료하면서 깨친 생의 '철리'를 풀어 놓았다. 나무와의 첫 만남을 가슴 떨리게 회상하는 이 책은 주목나무부터 자귀나무까지 스물 다섯 '에인'에게 보내는 연서기도 하다.

지은이의 직업엔 사연이 많다. 색맹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자의 꿈을 놓고 방황하다가, 겨우 맘 잡고 시작한 농사가 3년 정성 끝에 망하고 말았다.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되찾아준 것이 아까시나무다. 사람들 구박을 가시로 받아낸 아까시나무는 “나도 사는데 네가 왜 못사니”라고 그를 면박 줬다.

5리 건너 서 있다고 해 이름붙인 오리나무는 그에게 삶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러 줬고 꽃 밑동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동백나무는 박수칠 때 떠나는 절제의 미학을 깨우쳐줬다.

책의 전반부가 나무와의 사적인 조우로 깨친 내적 성찰을 중심으로 기술된다면, 후반부는 나무의 전반적인 특징인 연리지, 해거리, 죽음, 간격, 겨울나기 등에서 간취한 삶의 지혜를 담았다. 나무의 삶은 결국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삶에 대한 '은유'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책의 마지막에는 나무를 처음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화분 고르는 법, 비료 주는 법, 분갈이, 해충 퇴치법 등을 상세히 적었다. 그가 연 인터넷 사이트 '푸른공간' (www.greenspace.co.kr)을 찾는 사람들이 나무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도 자주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 강성민 기자